

특허심판, 명확한 의견 제출로 효율적인 심판진행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앞으로 의견요약표를 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건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요약표란 새로운 의견과 증거의 제출여부, 종전 주장의 철회여부, 당사자의 핵심주장 등을 기재한 요약표로서, 심판당사자가 사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제출하기 어려웠고, 심판부도 당사자의 핵심주장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부터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의견요약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심판의 주요 쟁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심판원이 의견요약표 제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의견제출이 가능하게 되고, 심판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LG전자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

이제 초일류기업에서 경영혁신기법 벤치마킹

전상우 특허청장과 김쌍수 LG전자 부회장은 지난 9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LG전자 트윈센터에서 혁신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특허청은 그동안 고객위주의 행정을 적

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관리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를 차지하며 혁신선도기관으로 도약하였으며, '06년 5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제는 정부부처 수준을 넘어 초일류 민간기업 수준의 혁신경험을 적극 벤치마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발족

찾아가는 특허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을 발족시켰다.

동 지원단은 특허청의 정보통신, 생명화학 등 각 기술 분야별 우수 심사관 4명 등 전담인력 7명과 더불어 40~50명 규모의 특허 경영 컨설팅을 위한 인력 풀을 구축하여 컨설팅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 지원단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특허 경영을 실천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확보, 모방품 대책, 직무 발명제도 등 특허경영 전반에 대한 “찾아가는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허 컨설팅 서비스”는 심사관 등 지식 재산 전문가들이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동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 특허경영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중소기업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중소기업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촉진할 계획이다.

킹 하고자 LG전자와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혁신파트너십 추진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LG전자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특허행정정보 연계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으며, LG전자는 6시그마 경영, 지식경영 등 경영혁신기법 노하우를 제공하고 직급별 리더십 및 변화관리 교육을 지원하며 경영혁신문화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여 특허청의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기업형 책

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초일류 민간기업의 선진경영기법을 벤치마킹하여 특허행정혁신을 강화하고 고객감동의 특허행정 서비스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은 그동안의 혁신활동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도 혁신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며, 혁신 BP(Best Practice)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 공감대 형성 및 혁신 문화 교류 등 지역 혁신 발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